

## 2016년 9월 4일(주일) 찾아오신 예수님(4) “만물을 통한 영생의 의미”(요 3:31-36)

### [1] 거듭나고 가능해진 것

‘나는 거듭났는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삶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책 소개: “루이스 vs. 프로이트” (니콜라이 저, 홍승기 역) - 7 과.

평생 사랑에 관한 연구를 한 무신론자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트에겐 당황스러운 말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는 만일 계명이 ‘네 이웃이 너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명처럼 인간의 근원적 본성을 거스르는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이 계명이 인간의 근원적 본성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새로운 성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거듭 나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거듭남이란, 생물학적 목숨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규명할 수 없는 새 성품을 만들어내는 영적 생명이 나의 인격과 마음에 심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육체의 조건)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12: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생명은 목숨을 뜻합니다. 목숨을 강화하려 하지 말고, 영생을 담을 그릇으로서 목숨을 보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목숨을 함부로 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담을 소중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거듭 나서 영생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만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가르치는 바를 살피겠습니다.

### [2] 영생과 만유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 손에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받았다는 것은 소유와 사용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똑 같은 상속을 받았어도, 유흥에 써버릴 수도 있고, 뜻 깊은 곳에 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속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만유의 상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피우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35 절.**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충만히 받는 분이기 때문에 받으신 만유 즉,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치를 높여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뱀에게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계에 대한 권리를 잃었습니다. 불법으로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 소지자를 예수를 통해서 쫓아내시고 창세 때에 인간에게 주셨던 만유에 대한 권리를 예수께 주신 후 예수 믿은 성도가 예수와 함께 만유를 공동 상속받게 하십니다(롬 8:17).

이제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높은 가격표를 붙이게 되는데, 그 액수 란에는 “아가페 하늘의 신적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만유의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소유와 사람과 관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치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걸을 보고서는 몰라도 진가를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주어진 모든 소유와 사람에게 그 가치가 다시 재정립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사용할 돌 덩어리를 보고 장차 조각될 아름다운 다비드(다윗)의 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에겐 돌이 아니라 다윗의 가치로 보였던 것입니다. 멀리 있는 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돌을 보고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나의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나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고 하실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이 예수님의 만유에 속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매겨 놓으신 무한대 영생의 사랑의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의 가치로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 맺음.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셔서 세우신 만유의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며 나누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안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서 삶의 힘을 얻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내게 열립니다. 이제 그 사랑의 차원은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나는 내가 속한 사회와 직장과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관계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씩 짚어가며 말씀해 보십시오.
2.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다시 한번 확고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토의하면서
3.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관리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아래에 멕시코 시티의 시장의 노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 - 켄 가이어, '영혼의 창'에서 인용

"시장 한 그늘 구석에 양파 파는 포타라모라는 인디언 노인이 있었다. 노인 앞에는 양파 20 줄이 걸려있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물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 센트요. 두 줄에는요? 20 센트. 세 줄에는요? 30 센트. 25 센트에 3 줄 주겠습니까? 안 되요. 스무 줄을 다 사면 얼마입니까? 스무 줄 전부 다 팔 수 없소. 왜 못 판다는 겁니까? 양파 팔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요.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한다요. 페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자기 아이들과 농작물에 대해 얘기할 때 듣는 것을 사랑한다요. 친구들 보는 것을 사랑한다요.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스무 줄을 파는거요. 한 사람한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대요."